아시아 공동체론 개인 에세이 201721677 김은진 (출석번호 29번)

1. ‘아시아 공동체’란 과연 필요할까?

고등학교 때 ‘일본어’반이었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컸던 나는 일본 지역연구 과목을 찾아보는 중에,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수업이 윤강으로 진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여러 강사님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는 윤강 형식의 강의는 처음 수강해보는 것이어서, 설렘이 컸다.

수업 첫날에는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겠구나 라는 내 생각은 빗나갔다. 이 과목의 이름이 ‘아시아 공동체론’ 임에도 불구하고, 이왕휘 교수님은 우리에게 “아시아를 잊어라.”라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중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곤여만국전도를 보게 되었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다고?’라는 반응을 보이며,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유럽에 역전당하는 원인이 되었듯이 우리들 역시 세계 속에서 우리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아시아’라는 틀에 가두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나 역시 초반에는 이 강의에 공감했고,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렇다면 이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내가 왜 듣고 있는 것이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랬던 나에게 이 수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준 것은 정준곤 박사님의 수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는 강의였는데, 이 강의를 계기로 나는 왜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박사님도 역시 우리는 지금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에 있고, 우리의 최종목표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이왕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었다.

.정준곤 박사님은 세계가 하나로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아시아’국가의 연대인 아시아 공동체가 최종목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나는 이것을 듣고 내가 이 강의를 왜 듣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사실 두 분이 강조하신 최종목표에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런 나라의 장벽을 허무는 데 하나의 과정으로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수업을 거치면서, 나는 이 과목에 조금 더 많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1. 아시아 공동체란 과연 실현 될 수 있을까?

초반에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강의가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아시아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 알게 해주는 강의도 있었고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도 좋을지 모른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은 매우 두드러진다. 유럽에서는 단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김용기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은 ASEAN, ASEAN+3, RCEP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수업 외적으로도 내가 관심을 가지며 찾아본 결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공식기구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세계 연대에 대한 관심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듯이

아시아 국가 간의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일로일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1. 그럼에도 남아있는 과제

그런데도 역시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박성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역사 문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역사를 둘러싼 대립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한국도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일본과 중국 역시 대립이 있다. 간단한 예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둘러싼 일본의 반응을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우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한국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일본.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대립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공동체에서 누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과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 필요하다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사실 그것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나와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1. ‘아시아 공동체’, 그것의 의미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본, 한국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욱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려도 역시 동남아시아도 수출시장과 생산기지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우리는 서로 먼저 다가서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 남은 과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아무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서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양한 협력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대해

사실 중간 중간에 한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도 꽤 많아서 흐름을 놓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박성빈 교수님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주는 시간이 있어서 강의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편이어서 지칠 법도 한데 모두 수업 태도도 좋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다. 공개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이 많았다. 국제 학부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얻어가는 것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